

칠레 코델코, 가까운 시일 내 채굴 작업 재개 예정

칠레 Reuters, America Economia, Bloomberg

2022/08/19



□ 칠레 국영 광업 기업 코델코(Codelco)가 중단했던 채굴 작업을 곧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.

- 최근 칠레 국영 광업 기업 코델코가 지난 2022년 7월 중순에 중단했던 구리 채굴 작업을 조만간 재개한다고 발표했음.
-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 구리 채굴 기업인 코델코는 지금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22년 7월 중순, 두 건의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채굴 작업을 임시 중단했음.
- 막시모 파체코(Maximo Pacheco) 코델코 회장은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취했으며, 채굴 중단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작업 프로세스를 수정 및 개선했다고 말했음.

□ 코델코는 작업 환경 개선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 버스로 작업자를 이송할 예정임.

- 한편, 막시모 파체코 회장은 코델코가 작업자 이송을 위해 전기 버스를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음.
- 코델코는 작업자 이송용 전기 버스 도입을 통해 코델코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. 코델코는 2030년까지 연간 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70%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임.
- 막시모 파체코 회장은 전기 버스 추가 도입이 코델코의 전반적인 작업 프로세스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음.

□ 코델코가 구리 채굴 효율을 높이고 채굴 가능 연한을 늘리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.

- 코델코는 이번 작업 프로세스 개선 발표에서 앞으로 구리 채굴에 인공지능 기술도 이용한다고 발표했음.
- 코델코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면 구리 매장량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, 채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.
- 코델코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노후 광산의 채굴 가능 연한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.